

## 우리들의 모습



6월 15일(주일) 진안리 성지에서 예비신학생 6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6월 모임에서는 예비신학생과 부모님들과 다함께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원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특별히 한국인 첫 신학생이기도 했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뒤를 잇기 위해 준비 중인 예비신학생들을 위한 주교님의 안수 축복과 십자가 수여 때는, 모두 함께 뜨거운 박수와 큰 환호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 7월 3일 토마스  
예비신학생 - 권혁원 (봉화, 고2)
- 7월 5일 대건 안드레아  
예비신학생 - 박성호 (점촌동, 고2)  
예비신학생 - 최원석 (하망동, 중1)

## 예비신학생 기본교리

### 성유(聖油)

세례성사 혹은 견진성사를 받던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목과 이마에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거행했어요. 바로 거룩한 기름, 성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사 중에 신부님이 세례수를 축복하는 모습은 기억나는데, 성유를 축성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도대체 성유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성유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예비신자 성유', '병자 성유' 그리고 크리스마 성유라고도 부르는 '축성 성유'입니다.

성유를 만들려면 기름이 있어야겠죠? 성유의 재료는 주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예비신자 성유'와 '병자 성유'는 순수하게 기름만을 사용하는 반면,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 때 사용하는 '축성 성유'는 기름에 향료(발삼)를 섞어 만듭니다. 이렇게 축성 성유에 향료를 섞는 것은 축성 성유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분이 지니신 성령의 충만에 더 깊이 참여함으로써,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2코린 2,15)를 풍기게 해 준다는 의미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성유는 1년에 한 번, 주로 성 목요일 오전에 각 교구별로 거행하는 '성유축성미사'에서 주교님이 축성하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당에서 성유축성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은 예신생 여러분들도 모두 성유를 받았으니, 주위 친구들이 우리 예신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 가톨릭신문 제3384호 18면 참조

## 기억해요!

### 1. 예비신학생 여름 캠프

- 일 자 : 7월 19일(토) - 20일(주일)
- 장 소 : 북면성당 및 춘양 백두대간 수목원



2025년 7월

## 예비신학생 편지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원미사 봉헌 - 진안리 성지>



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

[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

## 예신생과 나누는 'Joungul'

### - '미사의 무게' -

룩셈부르크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산림감시원이 정육점에 갔을 때, 누추한 옷차림의 한 여인이 가게로 들어와서 말했다.

“돈은 없지만 고기가 꼭 필요한데. 조금만 주실 수 있는지요? 그 대신 당신을 위해서 미사 한대를 바치겠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면서 속으로 그 여인을 비웃었다. 정육점 주인이 다시 말하였다.

“그럼 좋소. 가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미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시오. 그럼 그 미사의 가치만큼 고기를 주겠소.”

여인은 가게를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온 후 정육점 주인에게 “당신을 위하여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라고 쓴 종이를 건넸다.

정육점 주인은 장난삼아 저울의 한 쪽에 그 여인이 준 종이쪽지를 올려놓고, 다른 한 쪽에는 뼈 한 조각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저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후 큰 덩어리의 고기를 올려놓아도 저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부인을 경멸했던 일을 깊이 후회하며 정중하게 부인에게 사과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산림감시원은, 이 믿지 못할 기적을 보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미사를 드리는 신자가 된 것이다.

이런 아버지의 깊은 신앙생활을 곁에서 보며 자란 그의 두 아들은 각각 예수회와 예수성심회의 신부님이 되었다. 스타니슬라우스 신부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성심회 회원이며, 그 산림감시원은 바로 나의 부친이었습니다.”

## 신학생으로부터~

올해 대구신학교에 입학한 1학년 신학생 12명의 이야기 (Trinitas No.79)



- ☺ 하느님 나라에 뿌리를 깊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곳에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꾸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 ☺ 하느님에 대해 하느님의 사랑 방법에 대해 배우는 즐거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 ☺ 자비의 원형을 닮아가는 희망 속 힘든 여정에서, 서툴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 저는 이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 ☺ 힘들 때마다 도움 주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 ☺ 남이 보기에 이곳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느님 안에서 저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 ☺ 항상 즐겁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 ☺ 힘들지만, 그렇다고 막 힘들진 않았고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열심히 적응했습니다.
- ☺ 신학교 생활은 힘든 부분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 ☺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 여정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 ☺ 적응을 못 할까 두려웠지만, 이젠 그런 걱정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 ☺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의 톱니바퀴 되어 느리지만 함께 돌고 있습니다.

## 난 도 리 - 백종현 페르디난도



주님의 능력이 무대하네.. 페르디 3:20 NANO